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방위 대응

정현을 익산시장,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예산안 등 반영 건의

익산시가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가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최정록 방역정책국장과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동물용 신약과 의료가기 개발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강성희 재난경감과장에게 시민 안전을 위한 '병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계속사업인 '내조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문수 노인지원



정현을 익산시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과정을 만나 고려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윤석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을 만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시는 정부의 예산 편성 흐름에 맞춰 앞으로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설득을 지속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익산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 아이디어로 '꿀잼 익산 만들기'

총 21개 팀 선정...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 '홍성'

문화도시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나 색다르고 즐거운 '꿀잼도시'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올해 '삼삼오오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재미를 만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삼삼오오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익산을 위해 필요한 것과 해 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직접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주체 플랫폼이다.

올해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 만들기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시민 참가팀 모집을 완료하고, 팀별 모임을 거쳐 지난 13일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결과공유회에는 총 91개 팀이 참여해 토크 투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선보인 아이디어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비롯해 가면을 쓰고 플래시몹을 펼치는 가면 축제, 익산 특산물인 고구마와 마를 이용한 컬링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는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21개 팀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익산 전역에서 아이디어를 실행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및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5) 또는 희망연대(063-841-7942)로 전화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바다의 날 맞아 해경과 정화 활동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5톤 수거

군산시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군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20일 실시했다.

금강하구 인근에서 전개된 이날 활동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해경, 군산해수청, 군산해양환경공단 등 7개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바닷가 거세게 부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금강하구 해안에 밀려온 스티로폼 페루프·각종 플라스틱, 해안가에 방치된 페어 구 및 비닐 등 5톤가량의 해양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바다를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 구



슬픔을 흘린 이들은 이후에는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시는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하여 금강하구 해안가에서 꾸준하게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도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각지대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의료원, 급성기 진료시설 신관 운영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급성기 진료시설이 본격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급성기 진료시설이 마련된 신관은 2019년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 사업에 선정된 후 2020년 설계에 착수했으며, 2021년 필수 의료시설 및 감염병 전담 병동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후 △2022년 설계 완료 △2023년 4월 착공 시작 △2024년 12월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급성기 진료시설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 면적 9,357㎡의 규모로 국·도비 총 410억원의 사업비

가 투입되었다.

내부 시설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84병상) △수술실(5개) △중환자실(22병상) △감염병 분만수술실(1실) △감염병 전담 병동(7병상)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에는 음압격리실과 위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 지원 시설이 갖춰져 감염 예방과 진료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감염환자 이동 경로를 분리한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진료 동선 분리 설계 등은 감염 예방과 의료진 및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침수 피해 대비

하수관로 준설공사 진행

익산시는 무기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수관로 내부에 쌓인 토사, 생활 쓰레기 등 퇴적물은 원활한 배수를 방해해 폭우 시 하수관 역류와 도로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주요 상습 침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3인 1조로 구성된 준설팀 3개 조를 운영해 하수관로·빗물받이·맨홀 뚜껑의 퇴적물과 관로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노후·불량 수도관

정비 예산확보 총력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추진 및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 전체 급·배수관 2,292km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수도관은 459km에 달한다. 이에 시는 유수율을 개선하고 수질 저하,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37억원을 투입해 총 99.8km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했다.

이 중, 국·도비 310억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조촌·경안·지곡동 일원 73.3km 구간의 관로를 교체했고, 시 자체 예산 127억원으로는 곤단 지역의 노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관로를 교체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후 수도관이 집중된 내온 급수구역 을 대상으로 2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963억원을 투입해 103.3km 구간의 노후·불량 수도관 정비와 700mm 구간의 누수탐사 및 복구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50억~80억원의 자체 예산을 지속 투입해 노후·불량수도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A등급' 획득

민선8기 공약 이행률 79.5% 달성... 전국 평균보다 크게 앞서

군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100일간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약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군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59개 공약 가운데 40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약이행률은 79.5%로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공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주요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화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년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정책반올림 운영) △찾아가는 생활돌봄 서비스 '우리동네 흥반장'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군산 수재맥주·청주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 및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을 개정해 공약의 확정 시기와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명시하고, 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약 홈페이지에 '공약지도'를 새롭게 게시하고 주기적인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약 추진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약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행정을 신뢰하고 함께해주시는 시민여러분과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약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정기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공약이행률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공약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